

광주 전일빌딩245, 시민복합문화공간 자리매김

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 운영
5~11월 시민 4만8천여명 참여
버스킹 등 시민 주도 행사 인기
“내년 차별화 프로그램 등 확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전일빌딩245’가 매주 토요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4만8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시, 융복합 공연, 초

대전, 버스킹, 투어, 공예 체험, 플리마켓, 인문학토크 등으로 구성된 ‘전일빌딩 245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에 약 4만8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일빌딩의 새로운 미래를 의미하는 ‘타임리스 24.5h’를 주제로 마련된 올해 프로그램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돼 총 22개의 프로그램을 346차례 운영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이끌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버스킹 챌린지’는 관객의 역할에서 벗

어나 시민버스로 직접 무대에 서서 끼를 뽐내고 초청버스커와 소통하는 무대로 채워졌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주동아리’, 자신을 브랜딩해 스스로 강연자가 되어보는 ‘시민참여 오픈 마이크’, 수강생들이 직접 PD가 돼 영상을 만들어 상영회를 개최한 ‘K콘텐츠 프로듀서 양성과정’ 등은 주도적인 시민 참여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 16일 열린 ‘스토리가요제 : 노래는 사연을 싣고’는 총 160명이 참가해 결선 무대에서 20대 1의 예선 경쟁률을 뚫고 진출한 8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끼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노래에 담긴 각자의 사연을 관객과 나누고 소통하며 호평을 받았다.

‘스탬프 투어’는 ‘방탈출 게임’을 동기(모티브) 삼아 전일빌딩245 건물 내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으로, 전일빌딩245가 광주 대표공간으로 입소문을 타는 계기가 됐다. 총 18차례 진행된 ‘스탬프 투어’는 980명의 시민이 참여해 전일빌딩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작가와 소통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인문여행 북새통’에 참여한 시민은 “요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인문학이 주목받고 있는데, 아이

와 함께 박준, 임흥택 두 작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할 수 있어 풍성한 시간이었다”며 “체험뿐만 아니라 강연 등 시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정아 문화도시조성과장은 “전일빌딩 245 시민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전일빌딩에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며 “젊은 세대의 방문과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난 만큼 이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내년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산림연구원, 자생식물 세밀화 전시

산림바이오 거점사업 준공기념
5일까지 지역 희귀특산종 25점

전남산림연구원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준공을 기념해 오는 5일까지 남도산림연구원산림비즈니스센터 1층에서 ‘전남지역 희귀특산 자생식물 세밀화 전시’를 연다.

세밀화는 손으로 직접 식물의 미세한 구조를 비롯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꽃이나 줄기, 열매를 묘사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뜻한다.

세밀화 순회전시는 전남도산림연구원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이 2003년부터 제작해 소장하고 있는 세밀화 중 전남지역에서 자생하는 희귀특산식물과 난대수종 위주로 선별했다.

전남에는 완도호랑가시나무, 다도해비비추 등 특산식물 50종, 왕자귀나무, 끈끈이귀개 등 희귀식물 191종, 조도만두나무, 흑산도비비추 등 희귀특산식물 20종 등 총 261종의 희귀 특산식물이 분포해 있다. 이 가운데 조도만두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흑산도비비추, 흥도서덜취 등 4종은 전남에서만 자란다는 특징이 있다.

특산식물이란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육하는 고유식물로, 미세한 환경요인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생물 주권 강화 등 산림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토종자원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 남획 등으로 토종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예전에는 광범위하게 분포하던 특산식물들이 희귀종으로 변하고 멸종에 이르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전남지역 토종 산림자원 확보 및 이용 기반 구축을 통한 자원화를 위해 국립수목원과 함께 다양한 연구를 추진, 산림자원 탐사를 통해 꾸준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 추출물은행을 통해 비자나무, 동백나무 등 다양한 난대수종의 기능성을 연구해 화장품 개발과 식·의약 소재 활용을 통한 산림소득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오득실 원장은 “세밀화 전시를 통해 전남 산림자원의 보전과 이용, 다양한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한편, 스마트 혁신성장 거점사업과 연계해 경쟁력있는 산림바이오산업을 견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바이오 거점사업은 산림비즈니스센터, 종자양묘기술센터, 스마트 온실 등 최첨단 시설을 구축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난 11월 준공됐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을 산림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재탄생,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신용보증기금, 지역 스타트업 육성 맞손

“기업 경쟁력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전남도는 2일 도청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글로벌(Glocal)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도권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 불균형 해소와 지역특화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가 글로벌 으뜸기업을 포함해 지역 특화 스타트업(연 30개사 내외)을 신보에 추천하면, 신보에서는 전남도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평가 후 보증비율 100%, 고정보증비율 0.5% 등 우

대사항이 적용되는 글로벌 특화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맞춤형 성장지원(성장단계별로 보증한도 10억에서 최고 200억원까지 지원) △보증연계투자 △민간투자유치 기회 제공 △액셀러레이팅·기술자문·해외진출 지원 등 스케일업에 필요한 각종 융복합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협약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도는 앞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적극 협력하는 등 지역 창업생태계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산구 천원한끼 월곡점 개소식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등이 2일 월곡1동에서 고물가 시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든든한 한 끼를, 지역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천원한끼’ 3호점 개소식을 갖고 있다. 가격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40세 이상 복지 1인 가구는 콩나물국밥 한 그릇에 1000원, 그 외 주민은 3000원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수량은 하루 100그릇 한정이다.

광주 광산구 제공

광산구 천원한끼 월곡점 개소식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등이 2일 월곡1동에서 고물가 시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든든한 한 끼를, 지역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천원한끼’ 3호점 개소식을 갖고 있다. 가격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40세 이상 복지 1인 가구는 콩나물국밥 한 그릇에 1000원, 그 외 주민은 3000원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수량은 하루 100그릇 한정이다.

전남도, ‘행복동지사업’ 취약층 주거안정 특목

민관 협업...2016년부터 230억
총 1380가구 노후주택 개·보수

전남도는 전국 최초 주거복지 시책인 행복동지사업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실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행복동지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한 전남도의 대표 주거복지사업으로 지난 2018년까지 지방비로 추진했으나, 사업의 우수성이 입증돼 2019년부터 매년 복권기금을 확보해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등 민관이 협업한 대표적 협업 우수사례로도 꼽힌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 기관은 재능기부 형태로 기술적인 지원에 나섰으며, 전남도와 시군에서 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며 성공적인 민관 합동 주거복지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총 230억 원을 투입, 1380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올해는 복권기금 27억원을 포함해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73가구의 노후주택 개보수공사를 완료했다.

전남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통해 도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행복동지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전남형 만원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제1회 기상관측표준화’ 전국평가 우수

모니터링 강화 등 호평

광주시는 기상청 주관 ‘제1회 기상관측표준화’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상관측표준화는 기상청과 지자체 간 공동 활용 중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상

관측시설 유지, 품질관리 현황을 종합 진단·평가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상관측자료 수집률, 기상관측장비 점검 관리 등을 위해 기상관측 현장 설비를 수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기상관측 데이터 품질관리에 힘을 쏟은 점이 높게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각종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극지성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강수량계 설치 및 강우관측시스템을 운영, 기상청을 통해 시민들에게 표준화된 강수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민석자연재난과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난에 대비한 광주시의 대응역량을 입증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